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출 장 국 : 일본
- 출장기간 : 2024. 2. 19. ~ 2. 23.(4박 5일)
- 출 장 자 : 창녕군의회 의원 등 18명



창녕군의회

목 차

I. 출장 개요	03
II. 주요 출장내용	05
1. 공식 방문기관	05
2. 주요시설 및 현장견학	19
III. 출장 소감	22
1. 김재한 의장	22
2. 신은숙 부의장	31
3. 이승렬 의회운영위원장	39
4. 김종호 기획행정위원장	48
5. 하중혜 산업건설위원장	52
6. 홍성두 의원	55
7. 노영도 의원	60
8. 이동훈 의원	64
9. 박상재 의원	74
10. 이가은 의원	79
11. 김정선 의원	87
IV. 총평	98
· 참고자료(일본 국가현황)	101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사회복지·도시개발·문화관광·인구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외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2. 출장기간 : 2024년 2월 19일(월) ~ 2월 23일(금) / 4박 5일

3. 방문국가 : 일본

4. 방문기관

-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
- 공익재단 교토 시 경관 - 마을 만들기 센터
- 이즈미사노 시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

2. 출장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비고
1	의 장	김재한	
2	부 의 장	신은숙	
3	의회운영위원장	이승렬	
4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5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6	의 원	홍성두	
7	의 원	노영도	
8	의 원	이동훈	
9	의 원	박상재	
10	의 원	이가은	
11	의 원	김정선	
12	사무과장	김재식	
13	전문위원	하대원	
14	의정팀장	하왕훈	
15	전문위원	장경욱	
16	주 무 관	김성철	
17	주 무 관	황현주	
18	주 무 관	한주성	

공식방문기관

1.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사회복지협의회)

○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4:00

○ 장 소: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千葉市ハーモニープラザ)

○ 주요내용

- 하모니 플라자 시설의 소개 및 견학(복지센터 및 상담센터)
-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 방문결과

- 하모니 플라자는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복합시설이다. 연령과 장애 유무 등 상관없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 건물은 4개의 동, 5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상담센터, 사회복지 연수센터, 사회복지 연수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복지시설이다.
- 하모니 플라자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배려한 베리어 프리를 처음으로 도입한 시설이다. 일반 건물들의 계단은 22cm지만 이곳은 15cm로, 다소 낮게 만들어졌다. 15cm는 초등학교 계단의 높이와 같은데, 고령자들도 쉽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 설치는 기본이며, 시설 곳곳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전광 시계를 설치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곳의 장애 지원센터는 시청공무원 및 민간단체들이 여러 역할을 분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신체장애인 및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학적, 심리학적 판정을 하는 업무와 신체장애인의 수첩 발행, 보조 장비 구비 및 지급 관리, 신체 장애 및 지적장애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보조 장비 지급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장애인에게 직접 현물로 장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 지급에 필요한 상담이나 장비 이용자로 적합한 것인지 판정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인원으로는 총 13명의 직원이 있고, 비상근 의사 13명이 있다.
-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 시책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공생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장애인 자립 지원과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등 여러 계층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 센터를 설치하여 치바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리고 있다.
- 하모니 플라자에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치바 시 노인 클럽 연합회와 치바 시 노인 복지시설협의회가 대표적이다.
 - **치바 시 노인 클럽 연합회:** 지역 자치회 정도의 범위를 기반으로 한 60세 이상의 지역 거주자들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들은 사회봉사 활동, 스포츠 클럽 활동, 건강 증진이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친구 만들기 등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 2023년 4월 조사 기준 치바 시에는 195개의 노인 클럽에 약 8,8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치바 시 노인 클럽 연합회는 각 노인 클럽별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전체 가교로서 연결고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치바 시 노인복지시설 협의회:** 이곳은 노인복지시설, 특별 양로원, 요양원, 통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로서, 1991년 5월 고령자 복지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용자 위주의 시설로서, 고령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도 시설에서 행해지는 각 사업의 경영 안정화와 개인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연수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질문) 이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은 민간 단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답변) 치바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민간 단체의 정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질문) 이렇게 큰 종합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혹은 센터 자체 기금이 따로 있는가?

답변) 치바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예산과 국가의 지방교부세에서 나오는 예산이 함께 쓰이고 있다.

질문) 장애인 수첩을 어떤 식으로 발급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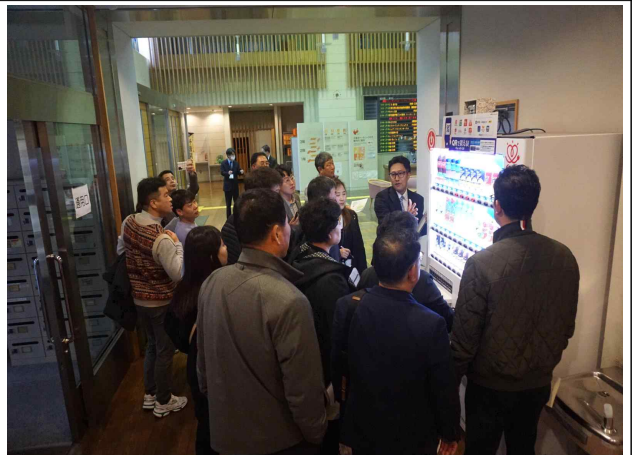
답변) 이용자가 신청하면, 서류를 우편발송하고 신체장애인의 급수와 판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센터로 정보가 들어오면 수첩을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수첩 현물이 발송된다.

질문) 이용자들에게 숙식 서비스가 제공 되는가?

답변) 운영시간 동안의 방문 및 이용만 허용되고,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가져오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된다. 대신 일본은 치바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고령자 보험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전체 서비스 비용 중 10%만 자부담하면 식비 혹은 식사 수발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관련사진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 공식 방문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

○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10:30

○ 장 소: 어린이의 나라 협회(社会福祉法人こどもの国協会)

○ 주요내용

- 어린이의 나라 협회 브리핑 청취
- 운영 현황 및 일본 저출산 관련 질의·응답

○ 방문결과

- 어린이의 나라 협회는 196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관하였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 후생시설인데, 개관 당시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여 풍부한 자연환경을 살려 어린이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놀이 활동 및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이나, 여름 하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은 중학생까지 입장료가 무료다.
- 근무인원은 총 60명인데, 원장을 포함한 32명의 정직원과 28명의 계약직 직원이 있다.
- 이곳에는 자연 관찰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부모와 아이가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자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목장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 연도별 방문객 추이로는 최초 개장하였던 1965년에는 59만명이었으나,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여 1985년에는 100만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였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54만명이라는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77만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질의응답

질문) 한국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의 영향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일본도 그러한 위인의 영향으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되었는가?

답변) 일본의 5월 5일은 단오절으로, 남자아이들의 건강을 비는 날이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 단오절인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되었다.

질문)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의 여론은 어떠한가?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변) 국회에서는 저출산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징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조정과 아동수당의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일본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만 어린이집에 입학이 가능할 정도로 어린이집 입학 조건이 높은 편인데, 그 기준의 범위를 넓히고 문턱을 낮추려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 사업이나 아파트 임대료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질문) 한국은 결혼 및 출산 축하금 정책이 있는데, 일본도 유사한 정책이 있는가?

답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지는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다.

질문) 일본에는 아이돌봄 제도가 있는가?

답변)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에서 돌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 부지 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돌보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돌봄 선생님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나 선생님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관련사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 공식 방문



3. 공익재단 교토 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

○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10:00

○ 장 소: 공익재단 교토 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

(公益財団法人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

○ 주요내용

- 센터 소개 및 브리핑 청취
- 운영 및 관련 정책 질의·응답

○ 방문결과

- 해당 센터는 교마치아(교토의 전통 가옥)의 보존 계승 지원, 지역 마을 만들기 활동 지원이라는 2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센터의 회장은 교토시장이 맡고 있으며 이곳은 3개의 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관 리 과: 법인 운영
 - 사업 제1과: 교마치아 보존 재생 활용 사업
 - 사업 제2과: 경관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 1997년 최초 설립 당시 첫 업무는 교토 내 교마치아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조사 자료는 향후에 있을 교토의 경관·마을 만들기에 활용되었다.
- 교토 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는 지역의 주체적인 경관 마을 만들기과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 이용 촉진이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곳은 시민·사업자·행정의 상호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21세기 교토의 마을 만들기의 가교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고충 사항을 상담하면서 법률 변호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를 시민과 연결해 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교토에는 자연 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거 환경의 보존을 위한 보존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교토는 보존지역 지정을 통해 공간의 계승과 도시 재생, 주거 공간의 공존과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교토는 보존지역 외에도 기업을 유치하는 창조지역을 지정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토는 시가지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31m로 제한하고 있으나, 창조지역 내에는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 이 외에도 교토 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는 교토의 빈집에 대한 방제 대책, 마을 만들기 연수 계획에 관한 방침 지원,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규칙을 정하고 규제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지구 계획 수립 지원, 지역 경관 만들기 협의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 경관 만들기 협의회란 경관·마을만들기 업무에 관한 교토시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서 가령, 가게의 입간판이나 거리의 전봇대를 설치함에 있어 통일성 있는 설치 기준을 마련하거나 빈집을 수시로 확인하여 빈집 수첩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교마치아는 교토의 전통 가옥으로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공법으로 지어진 1950년대 이전 건축물이다.
- 교토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는 교마치아의 활용에 대한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건수는 연간 500여 건이며 관련 전문가로 목수,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등 약 9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 교토 전통 가옥이 교마치아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한화 약 500만원의 보수공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토시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교마치아 보수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 질의응답

질문) 빈집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활동이 있는가?

답변) 빈집의 문제점과 빈집이 생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빈집 소유자들에 대한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교토에서는 빈집을 방치하면 연간 세금이 부과되는데, 빈집에 매겨지는 세금은 면적대비 0.7%이다.

또한 교토시는 소유자가 있는 빈집을 매입하지 않지만 소유자가 시에 직접 기부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부받은 빈집을 관리하게 된다.

○ 관련사진



4. 이즈미사노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

○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00

○ 장 소: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泉佐野市ふるさと納税課)

○ 주요내용

- 단체 소개 브리핑 청취
- 운영 현황 및 질의·응답

○ 방문결과

-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이므로 정책의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한국은 주민 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지만, 일본은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주는 답례품은 받을 수 없다.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활용 목적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은 지자체에서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납세창구(인터넷 사이트)는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20여 개의 민간 창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처럼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 일본의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한정된다. 이즈미사노시처럼 1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자체는 답례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답례품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즈미사노시는 답례품 개발 사업자에게 답례품 제조·가공·개발과 더불어 여러 가지 설비 투자에 필요한 사업비 100%를 보조한다.
-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 서비스 목록으로는, 고기류 및 해산물, 채소 등 1차 생산물을 비롯하여 전통 사찰 수행체험, 조상 묘지 청소 서비스, 정책기부 지원 GCF(Government Cloud Funding) 등이 있다.
- 이즈미사노는 타올의 발상지라는 특색을 활용하여 이즈미사노 센슈 타올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쟁·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답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 질의응답

질문) 기부받은 고향납세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답변) 일본은 기부자가 본인의 납세액에 대한 활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 기부금은 전용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 용도에 맞게 기금을 사용한다.

질문) 이즈미사노의 연간 세입 중 고향납세로 들어오는 비중은 어느 정도 인가?

답변) 이즈미사노의 한 해 전체 세입은 약 700억 엔이며, 이 가운데 약 100억 엔이 고향납세기부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질문) 이즈미사노가 고향납세제도가 활성화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답변) 일본인들은 이즈미사노를 고향납세의 상징적인 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향납세제도 도입 초창기부터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질문) 이즈미사노는 1차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라 하였으나, 답례품 목록에는 농산물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어 답례품으로 지급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는가?

답변)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으나, 1차 농산물을 그대로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답례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반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즈미사노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농업인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얻는 방법의 하나로 고향납세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고향납세금으로 들어온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에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질문) 고향납세제도 초창기에는 납세창구(인터넷 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하였나?

답변) 처음 제도를 시행했을 때 민간 납세창구는 운영되지 않았다. 2012년부터 민간 기업이 수입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민간 창구가 활성화되었는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창구는 정부 규제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 **관련사진**



■ 주요시설 및 현장견학

1. 동경 신도청 전망대, 신주쿠 거리

- 도청 제1 본청사의 상층은 남북 2개의 타워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지상 202m, 45층에 전망실이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동경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 신주쿠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변화한 기차역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일본 교통의 요지이다. 특히 신주쿠역은 플랫폼 수가 굉장히 많고 미로에 가깝다.

2. 도쿄국립박물관

- 도쿄국립박물관은 일본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박물관으로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전시품 중 다수는 사무라이를 주제로 하고 있고 일본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작품들(전통공예, 조각공예, 금속공예, 일본 칠기, 직물 공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도쿄국립박물관의 동양관에는 한국을 주제로한 전시실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곳에는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창녕출두품이 있다.

3. 청수사 교토 전경 및 니넨자카 거리, 기온 거리

- 청수사(기요미즈데라 사원)는 교토의 대표 사원으로, 교토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사원의 거대한 기둥들로 받쳐진 대형 연단은 일본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 하나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원들과 옛 교토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을 볼 수 있는 니넨자카·기온 거리는 15세기 요시마사 쇼군의 통치 아래 문화적 부흥기를 거친 곳으로서, 은의 사원이라 불리는 킨카쿠지 사원과 게이샤의 거처이자 연회 장소로도 쓰였던 오차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4. 오사카성,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거리

-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로 꼽히는 오사카성은 에도 시대의 기반이 닦인 곳이다. 성의 역사는 158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성의 상징인 천수각은 1931년 재건되었다. 성과 인접한 역사박물관에는 유구한 역사의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주변 공원과 녹지는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 신사이바시 거리는 오사카의 변화가 중 하나로, 신사이바시 역에서 도톤보리까지 1.6km 구간에는 역사가 깊고 오래된 상점가들이 많다. 신사이바시라는 지명은 신라교(橋)에서 유래되었는데, 과거 신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겨난 지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 도톤보리의 지명은 도톤이라는 거상이 운하를 건설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에는 오사카의 랜드마크가 있는데, 육상 피니싱 라인을 통과하는 글리코-맨이 그것이다.

5. 기타노초와 난킨마치

- 고베의 기타노초는 19세기 일본의 개항 당시 외교관과 외국 상인들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지금까지도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있다. 19세기 후반 고베항이 개항하면서 고베시는 국제교역의 중심이 되었고 일본과 서구의 문화가 혼합되면서 기타노초는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진칸이라고 불리는 대저택은 이 시기 유럽과 일본의 건축문화가 융합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 난킨마치라고 불리는 고베 차이나타운은 중국과 일본이 상호조약을 맺기 전 중국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오늘날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으로 불리고 있다.

■ 김재한 의장

○ 자립과 공존: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지자체 절반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그 중 우리군도 고령인구 비율이 31%를 넘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역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 활력 저하는 국가경쟁력에 하락에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만이 겪은 위기가 아니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같은 문제를 겪어왔고 실효성 있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방문한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미래의 방향과 해답을 모색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1995년에 건립되었으며 그 규모가 축구장 2개의 면적에 달한다. 거대한 규모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설이 건립된 지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에 노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간 특별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였다.

또한 거대한 규모의 시설답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이었다. 장애인·여성복지시설, 취약계층 상담시설, 공연장 및 연수시설을 비롯한 노인대학 등 주요시설이 한 곳에 집합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굳이 먼 거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시설 확충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우리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듯하였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담실로 보이는 곳에서 한 노인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곳은 주로 장애등급 판정업무와 ‘장애인 수첩’이라는 장애 증명서 교부 업무, 그리고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 지급 상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하모니 플라자 관계자는 “우리 기관의 역할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본 의원은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공생사회 실현에 다가가는 진정한 미덕일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에는 장애인을 배려한 두 가지 장치가 있다. 하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서 지팡이다. 주요 기능은 지팡이에 부착된 센서가 장소를 인식하여 방향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의원도 눈을 감고 지팡이를 집어들어 보았다. 지팡이 센서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음성은 방향에 대한 믿음을 새겨주어 훌륭한 보조 장치로서 역할을 했다. 인도 내 불법주차와 도보의 파손으로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능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인 것 같다.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고안한 음료 자판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곳의 자판기는 일반적인 자판기와는 달랐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판기 버튼은 상단에 위치하여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반면 하모니 플라자의 자판기는 버튼을 하단에 설치하여 지체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치는 지금까지 노인과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라는 일방적인 인식에서 탈피해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본다. 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최소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지금부터 정책적인 대응과 사회 기반을 미리 정비한다면 결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리라.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KODOMO NO KUNI)

과거에는 마을 골목길 사이사이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명절이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졌다. 아이들은 미래를 책임질 인재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아동복지 정책은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여야 한다.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팔다리를 휘저으며 뛰어다닐만한 공간이 줄어들고, 대신 디지털 기기에 몰두하거나 학업과 학습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도시화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놀이와 사교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신체 발달, 사회적 기술 향상, 정서적 안정감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너무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어린이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어린이의 나라(KODOMO NO KUNI)는 요코하마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곳으로, 이름 그대로 어린이들의 왕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약 30만 평(축구장 130개 이상)의 넓은 면적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알차게 조성되어 있었는데, 가나가와현 주택단지 인근에 이렇게 거대한 부지가 있다는 게 놀라웠고 일본이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어린이의 나라 부지는 본래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탄약고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키히토 현 일본 상황(上皇)이 황태자 신분으로 있을 무렵 1959년에 혼인을 하였는데, 이때 건힌 결혼 축하금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아키히토의 요청에 따라 시설 건립에 착수하였고 1965년 첫 개관을 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1965년 개관한 이래 연도별 방문객이 꾸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방문객 추이를 살펴보면 1965년 개관 첫 해에는 59만 명을 기록하였고 1980년에는 역대 최대인 10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코로나 여파를 맞은 2020년에는 역대 최저인 54만 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에는 다시 77만 명으로 회복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8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

개관한 지 60여 년이 되었음에도 매년 꾸준한 방문객이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순간 우리 지역에서 한 때 전국구 관광지로 명성을 날렸던 부곡하와이가 떠올랐다. 1980년대 부곡 하와이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테마파크였다. 그러나 이후 연간 방문객이 20만 명대로 급감하면서 결국 2017년 문을 닫게 되었다. 부곡하와이의 쇠락 원인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어린이의 나라는 매년 시설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삼는 곳인 만큼 시설 노후화에 민감한 편이다. 시설관리부를 두어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곳이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만일 향후 부곡하와이가 재개장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연수에서 수집한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 개발은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이곳과 유사한 시설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모모돔, 기관차 버스, 트레저 킹덤, 수상 어트랙션 등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매년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타 기관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의 나라의 설립목적은 어린이들에게 광활한 놀이의 장을 주고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능력과 체력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캠핑과 음식 만들기 및 동물농장 체험 등 평소 도시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콘텐츠화 한 것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어린이에게 창의력을 충분히 심어 줄 수 있도록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다.

산토끼노래동산, 우포늪 생태체험장, 창녕생태곤충원,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등 우리군의 체험시설은 오히려 어린이의 나라보다 훨씬 다채로운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곳은 놀이공간이 이곳저곳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올인원(All in One) 형태로서 인력과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 이즈미사노시 고향납세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

우리군을 포함한 대다수 농어촌지역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생활인구가 감소

하면서 상권 활력이 둔화되고 세입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재정자립도가 감소하여 온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어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생소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연수단은 이 제도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자 고향납세 제도의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즈미사노시에 방문하였다.

사실 본의원은 당초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 오로지 타지인 또는 출향인사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기부를 받고 있어 고령층이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군의 작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경남도 내 10개 군부 중 모금액이 8위에 머물렀다.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입이었다.

그런데 이번 이즈미사노시 고향납세과를 방문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즈미사노시의 세입 비중이었다. 이즈미사노의 한 해 총 세입은 약 700억 엔인데, 그 중 15%에 해당하는 약 100억 엔을 고향납세를 통해 얻는다고 한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일본 고향납세

수입 1위를 달성했다고 한다. 2008년 도입된 이래 누적된 고향납세 기금은 무려 천억 엔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지방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정도로 수입을 얻는지 궁금했다. 시청 고향납세과 관계자는 ‘홍보 마케팅’과 ‘답례품’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즈미사노 시는 일본 내에서도 고향납세 제도를 처음 실시한 지역으로서, 일본인들에게는 고향납세의 상징적인 곳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 있어 많은 이점을 가진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 초기인 만큼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기부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즈미사노 시는 1차 산업보다는 섬유산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센슈 타올이 주요 답례품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우리군도 답례품으로 마늘과 양파를 제공하는 것처럼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와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다만 주목할만한 점은, 일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답례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1차 산업이 부진한 지역은 답례품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이즈미사노시는 답례품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자체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타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답례품을 개발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 조립·사찰체험·묘지청소·산책 및 오찬 제공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답례품을 구성하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답례품 제조·가공·개발 사업자에게 사업비 100% 보조를 해주는 파격적인 지원도 인상적이었는데, 덕분에 이즈미사노 시에서는 답례품이 무궁무진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연수단 일정상 답례품 가공 사업 현장에 가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지역특산품으로만 답례품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답례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은 지자체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기부 수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례품 제작에 관한 민간 사업자가 많아진다면 고용 창출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 의정연수를 마치며

연수단의 일정상 한정된 시간에 관계 시설을 모두 둘러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렇지만 우리 연수단을 위해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주고 열정적인 설명을 해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군의회의는 이번 국외출장이 일본의 선진사례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연수를 마친다.

■ 신은숙 부의장

■ 일본의 문화·관광자원 벤치마킹과 우리군의 과제

우리군의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군은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선진 관광산업의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개발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 선진국인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했다.

○ 글리코상으로 본 오사카의 랜드마크 관광

본 의원은 작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연수를 다녀온 이후 도시의 관광자원에서 랜드마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오사카 방문에서 또다시 랜드마크가 가진 의미에 대해 느끼게 되었는데, 바로 오사카의 상징이라 불리는 ‘글리코상’ 때문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오사카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곳이다. 글리코상은 오사카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라고 불린다. 우리 연수단도 글리코상을 보기 위해 도톤보리에 방문하였는데, 초저녁부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지어 있었다.

오사카의 중심인 도톤보리에 설치된 글리코상은 달리는 캐릭터를 표현한 거대한 네온사인 간판이다. 본래 1935년 일본의 한 과자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로 제작되었다가 현재는 오사카의 마스크트가 되었다. 푸른색 배경화면에 흰색 캐릭터, 그리고 가운데 일본을 상징하는 붉은 태양이 그려져 있다. 어찌보면 단순해 보이는 간판인데 이 앞에서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오사카를 방문한다고 하니 의아하면서도 흥미로웠다.

일단 도톤보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임에는 분명했다. 글리코상 간판에는 무려 14만개의 LED를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두드러지는 시각적 효과 덕분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오사카에 왔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다. 또 아름다운 도톤보리 강의 배경까지 더해져 사람들에게 매력력을 배가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오늘날에는 여행자들이 여행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소위 ‘인증샷’ 문화가 유행이다. 도톤보리 내에서 글리코상은 일종의 ‘포토 스팟’으로서, 이곳을 배경으로 캐릭터와 같은 포즈를 취해 인증사진을 남기는 것이 유행인 것 같다. 특히 SNS 네트워크의 발달로 전 세계인과 공유가 가능해진 덕분에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3년 한 해 오사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약 1천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중 한국인 관광객은 240만 명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게다가 오사카 지역경제에서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라고 하니, 서비스·관광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말로 하면, 관광산업으로 누리는 지역경제 효과가 천문학적이라.

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통계상으로는 실감할 수 없었던 오사카의 관광규모를 비로소 체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광자원이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니즈(NEEDS)를 파악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우리군의 여러 관광요소들이 창녕군을 넘어 전국적인의 랜드마크로 가꾸어지길 바라본다.

○ 조화(和)의 미(美) 교토 니넨자카·산넨자카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간직한 우리군으로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역사와 전통의 도시인 교토의 사례가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교토 일정에 많은 기대를 하였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교토는 일본의 천년 수도답게 전통의 멋이 두드러진 도시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교토 청수사로 이어지는 니넨자카·산넨자카 거리였다.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길목에 즐비한 아름다운 상점가가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경주 황리단길이나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연상케 했다.

특히 청수사로 향하는 길목을 따라 조성된 일본식 전통가옥과 상점가가 돋보였는데, 통일감 있게 조성된 전통 건축물들이 청수사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리를 조화롭게 만들고 있었다. 덕분에 청수사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가 하나의 관광 구역으로 확장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만일 이 일대가 단순히 청수사로 이어지는 길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관광객들에게는 그다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군데군데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다면 오히려 미관을 해쳐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또한 고풍스럽고 단아한 건축물에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 덕분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도 분위기에 동화된 것 같아보였다. 식당과 상점의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도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리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우리가 마치 천 년 전 교토에 온 것이 아닐까 싶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니넨자카와 산넨자카는 일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조화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곳이었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일본 사회에는 개인 주의의 사고를 배제하고 조화를 통해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화(和) 정신이 있다고 한다. 니넨자카와 산넨자카는 이러한 일본의 화 사상에서 묻어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경관과 조화를 발달시킨 관광자원을 개발하기를 바라본다.

○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연계 관광

관광객들은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한정된 여행 기간 안에서 보다 많이, 보다 다양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행계획을 수립할 때의 1순위는 효율성이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갈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효율성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은 접근성이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 하여도 인접하지 않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면 여행지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일본 관서지방 여행상품으로는 오사카-교토를 묶은 연계 관광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도시 간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두 도시 간 거리는 50Km이며 철도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이처럼 오사카와 교토는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간서지방 여행의 필수코스라고 불린다.

현대 도시를 상징하는 오사카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천년 고도 교토. 본 의원은 오사카와 교토 방문을 통해서 인접한 두 도시의 이미지가 다른 것이 오히려 여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색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연계 관광을 통한 상호 보완의 장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생발전의 측면에서 지자체 간 연계 관광을 도입하면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확정하였는데, 우리군은 남동권역에 속해 가까이는 밀양·의령·함안·창원, 멀리는 부산까지 한 권역으로서 관광산업의 균형발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문화·휴양·관광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남동권의 전략인 만큼 우리군에서도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매력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스마트로 연결되는 생태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우리군의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토와 오사카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자체 간 관광의 성격을 상호 보완하는 것도 발전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느낀 아픔의 역사 그리고 교훈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국권피탈(경술국치)의 순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약 35년 간 일본에 의해 많은 인적·물적자원들이 수탈당했다. 그 중 문화재 유출도 많았는데, 대부분 도굴, 매매 등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

우리 창녕의 가야 유산들도 일제에 의해 대거 약탈되었다. 당시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있던 오구라 다게노스케라는 인물이 창녕의 문화재를 대부분 수집하였는데, 문제는 수집한 문화재 대부분을 일본으로 무단 반출한 것이다. 오구라 다게노스케는 일제의 패망 후에도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았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역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도쿄국립박물관이 있는 우에노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우에노 공원 일대는 동물원, 과학관, 광장 등 많은 시설이 조성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쉼터로서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웬일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편안하게 느껴지지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윽고 당도한 도쿄국립박물관 앞. 도쿄국립박물관은 1872년 개관하여 여러 나라의 유물을 포함한 11만 점이 넘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서, 소장품 대부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도쿄국립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천 엔)를 받고 있었다. 우리의 유산을 타국에서 입장료를 내고 관람해야 한다니. 많은 생각이 교차했던 순간이었다.

박물관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조각상이 있다. 동양관 방향 길목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석인(石人), 석양(石羊) 조각상이 그것인데, 마치 집주인과 반려동물처럼 우리 연수단을 환영해 주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모두 우리나라가 고향인 조각상들로,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가 깊은 문화재였다.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고 있자니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지키지 못한 아픈 역사가 떠올랐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일본 최대의 국립 박물관답게 규모가 굉장히 커서 아시아 문화재로만 구성된 동양관이 따로 있었다. 동양관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 문화재가 많았는데,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실감하였다.

떨리는 마음을 뒤로한 채 5층으로 올라갔다. 동양관 5층 10구역에는 한국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나 본 의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우리 창녕이 고향인 문화재들이었다. 금제팔찌, 금제귀걸이(굵은고리귀걸이), 금동관모(맞새김관모), 정강이가리개, 금동보요(새날

개모양 관꾸미개), 청동 합 등 아름답고 소중한 지역의 문화재들이 한켠에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창녕에서 출토된 문화재 소개란에는 붉은색으로 ‘Important Cultural Property’ 라고 표기되어있었다. 그 순간 가슴 아픈 감정이 마구 뒤섞였고 세월의 흐름을 엿보는 듯한 슬픔이 느껴졌다. 이런 문화재들이 우리의 손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자부심과 힘을 얻을 수 있었을지 아쉬움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대표하는 보물이므로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은 틀림없다.

이번 도쿄국립박물관 견학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더 나아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 아픔은 본 의원에게 우리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일깨워 주었고, 미래를 위한 희망과 결의를 심어 주었다.

광복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가 셀 수 없이 많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약탈된 우리 문화재를 되돌려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문화재 반환은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창녕의 유산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이 먼저 관심을 가질 때 반환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 이승렬 의회운영위원장

희망찬 2024년이 밝아오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초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다.

이번 연수 장소는 일본으로 수도인 도쿄와 제2의 도시 오사카를 중심으로 근교 도시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참 많은 일본에서 선진 시책을 공부하고 창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할 각오로 2시간의 짧은 여정에 나섰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도쿄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였다.

이곳은 남성과 여성, 장애와 비장애, 노인과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이다.

이곳에서는 사소한 차이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예를 들면 자판기에 키가 작은 아이들이나 장애인을 위해 낮은 위치에 음료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있었으며, 음료 설명도 점자로 되어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도블록이나 계단 손잡이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음은 물론, 소리를 통한 안내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모든 사람의 하모니(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방문했던 복지센터와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업체와 관공서,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창녕에서도 군청과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의원으로서 민간에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창녕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주위를 유심히 살펴볼 것을 또 한 번 다짐해 보게 되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는 일제 강점기에 넘어간 우리나라 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동양관에는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 다양한 나라의 유물을 소장·전시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의 유물은 전체 외국 문화재 중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창녕에서 출토된 출두품을 유심히 관람하였다. 1896년경 한반도로 건너와 전기사업으로 부를 쌓았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사람은 한때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할 만큼 많은 양의 유물을 일본으로 가져와 기증하였다. 그 종류 또한 석물, 불상, 도자기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잘 관리된 유물과 함께 한국어로 적힌 설명문을 보고 있으니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역사같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최근 우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 가치가 있는 주요한 유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에서도 옛 창녕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을 텐데 이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가진 유산들도 잘 보존하여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방문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에는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놀이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원과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작물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또한, 상설 체험장 외에도 사계절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가 주말마다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1959년 일본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해 전국에서 모인 축하금을 기금으로 설립하여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이지만 누적 입장객수가 약 5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민간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함에도 시설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고 기록되어 있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시설을 나올 때 어린이들이 입구에 있는 아스팔트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자유로운 낙서마저 놀이로 느껴질 정도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통해 상상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창녕의 관광 명소 중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이방면에 위치한 산토끼노래동산이 있다. 산토끼노래동산에서도 다양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고, 먹이주기 체험을 하는 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레일 썰매의 인기가 많은 것을 보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설 견학을 모두 마치고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일본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낮은 출산율 역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듯했다. 일단 이성 간의 만남의 기회가 매우 적고 결혼을 해서도 높은 집값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결혼 적령기 또한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 남자 35세, 여자 30세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장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창녕군 육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양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아닐지 생각한다.

다음날 방문하게 된 교토시에는 대기업 본사가 많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교토라는 천년의 수도 이미지가 자체가 인력 수급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됐지만, 역사 깊은 도시에 본사를 두고 싶어 하는 기업의 가치관이 인상 깊었다.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는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시의 교토다움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운영되고 있었다.

이 센터는 공익 재단 법인으로서 센터의장이 교토시 시장님이라 행정의 주도하는 형태긴 하지만, 다양한 기업과 주민이 함께 모여 완벽한 파트너십을 통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1950년대 이전에 지어진 일본의 전통 가옥인 교마치야를 유지·관리하며 전통을 계승하고,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간담회 시간이 모자랄 만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자신의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인상깊었던 것은 그들이 전통가옥인 교마치야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교마치야는 현재도 꾸준히 철거되고 있고, 그 자리에 주차장이나 호텔이 생겨나는 등 전통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조상의 지혜와 기술이 담겨있는 가옥을 지키기 위해 90여 명의 상담사를 배치하여 교마치야의 상속과 대여 및 거래에 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교마치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보수 공사 지원금을 지급하고, 교마치야 보존 네트워크를 설립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창녕에는 전통 한옥은 안타깝게도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 남아 있는 빈집에 대해서도 철거나 개보수 비용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전통을 살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광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된 곳은 고향납세제도로 일본에선 정평이 나 있는 이즈미사노시의 납세과였다.

이즈미사노에서 유명한 특산물로는 양파, 가지 등 농산물 외에도 일본 내 40%의 압도적 생산율을 자랑하는 타월이나 재난을 대비한 비축 생수가 있었다. 이러한 답례품을 구비해 둔다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홍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에서는 1,788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 1,785개의 지역에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즈미사노시는 고향납세제도로 2017년부터 3년간 일본 내 1위를 하고 누적 기부액은 현재 1,000억엔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내 국내에서만 60여 개 단체가 견학을 올 정도로 고향납세제도의 선도주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초반에 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굳힌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생각보다 많은 방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한국에서는 출향인들이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는 형태가 기본이지만, 일본에서는 거주지

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도 답례품을 받지 않는 대신 기부는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향사랑납세제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홍보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20여 개의 민간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접근성이 좋고 검색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며, 다양한 업체의 경쟁을 통해 기부자에게 풍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실제로 인기가 많은 플랫폼에서는 인터넷쇼핑처럼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었다.

일본은 또한 답례품을 만드는 회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다른 지역보다 답례품을 좀 더 활성화해 고향납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이즈미사노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농·축산물 외에 타지역 생산품을 가공하여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인기가 매우 많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고향납세를 모집할 때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된 사용처는 아동 및 육아 지원, 교육·인재 양성 등이 있었지만, 지진이나 전쟁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부금도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해 모금할 수 있는 점이 특이했다.

발표자는 고향납세제도 활성화에 답레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나도 이에 동감하였다. 이즈미사노에서는 각종 물품 외에도 불교 수행 체험권, 조상 무덤 청소 대행과 같은 서비스 형태의 체험형 답레품이 인기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체험형 답레품은 관광 활성화까지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녕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외에도 연수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사소하게는 모든 현장 방문 시 자료가 양면으로 출력된 모습을 보며, 우리 의회에서 도 현재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이 자료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러한 절약 문화를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일본에는 국민들이 대부분 검소하기 때문에 경차가 많고 불법주차가 없는 점도 본받을 만한 점이였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단체 버스 승강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혼잡도가 덜하고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 곳곳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우리 창녕에 도입해 볼 만한 시책들에 대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강구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우리 연수단이 보고 느낀 점들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창녕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고서 작성을 마친다.

■ 김종호 기획행정위원장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 국외출장은 많은 것을 보고 직접 체험하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는 창녕군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출장이었다.

사회복지·도시개발·문화관광·인구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본의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리 창녕군에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요소가 있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치바 시에 위치한 하모니 플라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 이즈미산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 등의 방문에 많은 기대를 품었다.

첫날 치바 시에 위치한 사회복지협의회인 하모니 플라자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치바 시의 시민들이 연령과 장애 유무 등 상관없이 자주적인 활동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장소로 4개의 동, 5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공동 참여센터, 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상담센터, 사회복지 연수센터 등이 있다.

이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은 치바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민간 단체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지방교부세와 시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센터에서 인상 깊었던 건 베리어 프리를 처음으로 도입한 시설이란 것이었다. 계단을 일반 건물 계단보다 낮은 15cm로 초등학교 계단 높이와 같은데, 고령자들도 쉽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 시계 설치 등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건물이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곳에서 신체장애인 및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학적, 심리학적 판정을 하는 업무와 보조 장비 구비 및 지급 관리,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며 비상근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등 여러 계층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 연령과 장애 유무 등 상관없이 자주적인 활동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 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날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나라 협회를 방문하였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의 영향으로 지정되었으나, 일본은 단오절로 남자아이들의 건강을 비는 풍습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어린이 나라 협회는 자연 관찰 활동을 위해 가족 단위로 방문하고 있으며, 부모와 아이가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자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목장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다. 연도별 방문객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54만 명이 방문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77만 명이 방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날에는 교토 시에 있는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곳은 시민과 사업자, 행정의 상호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교토의 마을 만들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고충 사항을 상담하면서 법률 변호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를 시민과 연결해 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토의 빈집에 대한 방재 대책,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규칙을 정하고 규제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지구계획 수립 지원, 지역 경관 만들기 협의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건 빈집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의 문제점과 빈집이 생겼을 때의 위험성, 빈집 방치 시 연간 세금이 부과된다는 안내 등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빈집 소유자들에 대한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빈집을 시에서 매입하지 않지만 소유자가 시에 직접 기부할 수 있고 이때 기부받은 빈집을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군에 이러한 사항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으로 이즈미사노 시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를 마지막으로 방문하였다. 우리와 다르게 일본은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답례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의 활용 목적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 전용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 용도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이즈미사노 시의 연간 고향납세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비중은 한 해 전체 세입 중 1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즈미사노가 고향납세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 된 이유로 도입 초창기부터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였고 답례품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여 기부자로부터 호응을 얻은 점을 말해주었다. 이즈미사노시는 1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어 답례품으로 지급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 농민들의 반발은 처음에 있었으나, 1차 농산물을 그대로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답례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반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즈미사노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농업인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얻는 방법의 하나로 고향납세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고향납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에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에 대해 기행행정위원장으로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이번 국외연수는 기행행정위원장으로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연수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 계기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만 의정연수 결과보고서를 마치겠다.

■ 하종혜 산업건설위원장

이번 공무국의 의정연수는 사회복지·도시개발·문화관광·인구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안목을 넓히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떠났다.

○ 하모니 플라자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치바 시에 위치한 하모니 플라자를 방문하여 견학과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모니 플라자는 연령과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 자주적인 활동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4개의 동, 5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일반 건물들 계단 보다 7cm 낮은 15cm로 건설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블록 설치하는 기본이며 시설 곳곳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전광 시계를 설치하는 등 배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 더욱 감명 깊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생사회 실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 느꼈다.

노인 복지시설 협의회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노인 클럽별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등 연결고리 활동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등 전체 가교로서 연결고리 역할과 개인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장애인 복지센터 및 노인 복지센터도 보다 심층적인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 어린이의 나라 협회 방문

둘째 날은 어린이의 나라 협회를 방문하였다. 어린이의 나라 협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 후생시설인데,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여 풍부한 자연환경을 살려 어린이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놀이 활동 및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이곳에는 자연 관찰 활동을 위해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부모와 아이가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자연 체험 활동과 목장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다.

○ 교토시 경관 및 마을 만들기 센터 방문

셋째 날은 교토 시 경관 및 마을 만들기 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센터는 교토의 전통 가옥을 보존 계승하고 지역 마을 만들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교토시장을 회장으로 3개의 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토에는 자연 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거 환경의 보존을 위한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공간의 계승화 도시 재생, 주거 공간의 공존과 정비를 촉진 시켰고, 교토의 빈집에 대한 방제 대책,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규칙을 정하고 규제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 군도 많은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안에도 빈집들이 있는 비중이 크다. 이 센터와 같이 주변 자연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살기 좋은 마을 및 인구 증가에 한 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 이즈미사노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 방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으로 일본 국외 연수 중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중 가장 눈이 띄는 것은 일본은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과 기부금의 활용 목적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답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가 방문한 이즈미사노시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답례품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답례품 개발 사업자에게 제조·가공·개발·설비 투자에 필요한 사업비를 100% 보조하고 있었다.

○ 국외 연수를 마치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연수였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노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시장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울 젊은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연수 중 일본에서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노인, 아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번 국외 연수에서 보고 배운 점 등을 창녕군에 접목시켜 군민들의 삶이 현재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수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 홍성두 의원

○ 사회복지협의회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일본의 치바 현 치바시에 위치해 있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센터 느낌이었다. 모든 주민들과 화합을 하고 같이 함께 살자라는 뜻으로 하모니 플라자라는 이름을 지어졌다고 했다.

이곳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와 시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공연이나 문화 행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덕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치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휠체어 높이에 맞춘 점자로 된 안전바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움직임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일반 계단보다 낮은 계단을 구축해놓았던 모습이 아주 인상이 깊었다.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 생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가 있는 대형 복합 사회복지센터 느낌이 들었다.

○ 도쿄국립박물관(오구라 컬렉션)

도쿄 국립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 유산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해외의 유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창녕 출토 유물이 도쿄 국립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었는데, 창녕에 살고있는 군민으로서

창녕의 유물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길 바라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길 기원한다.

○ 요코하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나라 협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나라 협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있는 기관단체였다.

어린이나라 협회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초적인 학습과 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기관단체가 많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는 도시 경관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곳으로써, 이 센터는 교토의 아름다운 전통적인 풍경과 문화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교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며, 그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는 도시 디자인 및 조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한다.

교토는 많은 문화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중에는 유명한 사원, 신사, 정원 등이 있다.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복원하여 교토의 역사와 문화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도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교토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이즈미사노시 방문

이즈미사노시 부시장의 환영 인사를 들은 후, 이즈미사노시의 특산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센슈 타올과 10년 동안 보존이 가능한 물이었다. 이즈미사노시는 일본 타올 산업의 발상지라고 한다. 이것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하나라고 한다. 우리는 이즈미사노시가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3년간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이곳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이즈미사노시가 3년간 전국 1등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이 이즈미사노시라고 일본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고 고향납세제의 선두 주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란다. 이런 시민의식이 인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홍보와 수많은 지자체와 경쟁하여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답례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인기있는 답례품은 육고기인데, 이즈미사노시는 1차산업(축산업)이 발달 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육고기를 공수해서 따로 가공하여 답례품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가공업체에 설비투자금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였다.

다음으로 인기 있는 답례품은 세금 감면이다. 기부자가 고향 지역에 기부하면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부금을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것 외에 기부금 답례품으로 지진이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도 있다. 이즈미사노시와 관계가 없어도 전액을 받아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도 한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 1천억 엔 이상 기금이 축적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수요가 크지 않은 답례품인 체험형 답례품(조상 무덤 청소 서비스, 전통가옥 거리 산책 및 점심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을 소개해주었다.

우리 창녕도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즈미사노시 방문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창녕군에도 다양한 답례품 발굴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좋은 물건을 가공품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타 농산품에 대한 우리군 농민들의 반발심에 대한 부분도 염려해두어야 할 것이다.

○ 창녕군의회 국외 연수를 마치며

도쿄와 오사카 국외 연수는 우리 창녕군을 위한 벤치마킹이 되었으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특히 오사카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였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전통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역사적인 유적지와 문화재가 있었으며, 오사카성, 신사, 사원 등을 방문하면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이 도시에서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노영도 의원

일본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4박 5일간의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의 첫 일정은 치바시의 하모니 플라자 견학이었다. 하모니플라자는 장애인이용시설로 한 건물에 다양한 센터가 집결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베리어프리 기관으로, 신체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장애인 시민들과 어우러져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었다. 하모니플라자 내에서 진단 판정 업무는 물론 상담과 각종 보조장비 구입, 발급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이동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이 매우 뛰어났다.

이렇듯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장애인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 촉진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통한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고령자,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바시의 모든 사람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센터 내에는 치바시의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단체가 들어와

있어 시단위 협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창녕군에도 종합복지타운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 민관이 협동하여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읍지에서 지내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및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 어린이의 나라 협회에 방문했다. 어린이의 나라 협회는 넓은 토지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놀이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우리 창녕군에도 산토끼 동산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의 나라 협회와 같은 가족 친화 시설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창녕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세 번째로 공익재단 교토 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에 방문했다.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는 교토시장을 필두로 3개의 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마치아 보존 재생 활용 사업을 하는 1과와 경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2과, 그리고 법인 운영을 맡은 관리과로 나뉘어있다.

최초 설립 당시에는 교토 내 교마치아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조사

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교토의 경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하여 지역 주체의 경관 마을 만들기과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 이용 촉진이 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토는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거 환경의 보존을 위한 보존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보존지역 지정을 통해 공간의 계승과 도시 재생, 주거 공간의 공존과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주택 외부 리모델링 사업이나 지역민들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후 우리 군에서도 교토 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처럼 사업을 세분화하여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창녕군민이 주체적으로 우리 군 살리기에 앞장서서 교토시처럼 창녕군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네 번째로 이즈미사노 고향납세과에 방문하였다. 한국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티브가 바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기부할 수 없고, 일본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첫 해 약 820억원의 수입에 그쳤지만 2021년도 기준 약 8조원에 달하는 기부금 수입이 발생하여 현재는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시행을 했고, 우리 군은 2억7천만 원의 기부 수입을 얻었다. 일본의 답례품 서비스와 세계 서비스, 운영시스템의 변천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부족한 세수를 대체하고, 재정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청수사와 니넨자카/기온 거리가 인상 깊었는데, 사원들과 옛 교토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 군에도 최근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의 문화유산도 오랜 세월에도 변치 않고 그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창녕군이 복지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데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자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창녕군 시책 사업인 인구 증가, 청년, 귀농·귀촌과 관련한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 이동훈 의원

일본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였다. 우리나라에 큰 아픔을 주기도, 또 가까이에 있어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늘 우리와 비교되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우리가 이번 국외연수로 방문하게 된 곳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산과도 같은 제2의 도시 오사카였다.

일본에 가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도쿄에 있는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였다. 치바시는 37개 시로 이루어진 치바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로서 인구는 약 98만 명 정도로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특례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였다.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기관명인 하모니에서 그 설립 비전이 짐작되는 것처럼 남녀나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모니 플라자에서는 크게 지역복지와 시설 복지 두 부문으로 나누어 모니터링 활동 추진, 지역 지원 활동의 추진, 재해 시 시스템 구축 강화 등 6개 주요 시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복지가 대부분이지만, 치바시에서는 다양한 민간 단체도 함께 치바시의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형태여서 배울만한 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단체가 좀 더 다양

한 영역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모니 플라자 건물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 준공 연도를 묻는 말이 나왔는데 199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였다. 시에서 공간대여를 해주고 여러 업체가 전기세 정도만 내고 이용하는 방식을 시행하면서도 이렇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일본의 시설관리와 공중도덕에 대한 태도가 느껴졌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편의 시설에서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높이의 계단, 점자가 입력된 핸드레일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갈림길에서 음성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지체장애인이 낮은 높이에서도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 번호로 표시해 둔 자판기 등이 있었다.

이는 그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고민한 노력이 보이는 결과였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창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요 복지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날 일정은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내에 있는 창녕 출두품 관람으로 시작하였다. 이곳에는 ‘오쿠라 컬렉션’이라고도 불렀던 전시 코너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전기회사를 운영하며 부를 쌓은 오쿠라 다케노스케가 도굴 및 수집하여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1,200여 점의 유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 창녕에서 출토되어 전시된 청동 합, 관모, 정강이 가리대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유물은 당시의 사회 풍습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었음이 분명했다.

이외에도 국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문화재 중 약 40% 정도가 일본에 있다고 한다. 이를 환수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도 타국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오사카로 향한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에 방문했다. 이곳은 1959년 4월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전해진 축하금을 기금으로 하여 설립된 곳으로 현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사이클·보트·파크 버스 등 탈 것이 있었으며, 동물원과 야외 수영장 등 체험 거리도 눈에 띄었다.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어진 이 시설에서는 풍부한 자연환경 속 놀이를 통한 성장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구황작물을 수확해 보는 체험과 여러 곤충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생태 위주의 운영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생태의 도시 창녕에도 활용할 자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포 생태체험장, 산토끼노래동산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늘리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한때는 모든 어린이가 한 번쯤 수학여행을 와 본 적 있는 부곡하와이가 재개장하게 된다면 도입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다.

이외에도 일본 전체에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현재 의료보험료 추가 징수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국민 여론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저출산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범위 안에서는 긍정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수당의 연령을 높이거나 금액을 증액하는 등 현금 지원에 대한 논의, 까다로운 보육 기관 맞벌이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 변화가 실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출산율과 직결되는 미혼율 역시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이벤트를 마련하여 이성 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한다.

출산율은 인구 증가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뉴스로 연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1월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창녕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지원 시책은 전국에서도 상위에 자리할 만큼 최고 수준이지만, 이러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 의료기관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고 싶은 창녕 건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날은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는 지역 마을 만들기 활동의 촉진,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 이용의 촉진의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주민·기업·행정이 한데 모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었다.

관리과, 사업1과, 사업 2과로 이루어진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건축사, 법률 전문가 등 각계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1과에서는 일본의 전통 가옥인 교마치야와 같은 마을의 자원을 살리면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교토는 일본의 경주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름 자체에서 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 깊은 도시이다. 그래서 경관을 보존하고 마을의 침체를 막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에서도 인정한 지역 경관 만들기 협의회라는 조직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지역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도 협의회와 의견을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간판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설계하고, 전신주 매립을 진행하는 등 거리 조성계획이 잘 구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건물에 설치하는 발의 문양도 마을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엿보였다.

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둘러본 교토의 청수사, 전통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니넨자카 거리, 기온 거리를 탐방했을 때 예스러움을 지키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경관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도 소중한 옛 마을의 방식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나아가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2과에서는 전파장애 해결, 빈집 관련 상담 등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다.

우리 창녕에도 방치된 빈집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관리 비법이 궁금했는데 그들은 빈집 수첩을 작성해 현황을 파악 중이며, 빈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화재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시에서 기부

받아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건축사, 목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일하고 있어 처리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창녕에서도 빈집 철거 비용 지원 사업, 개보수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이지만, 군에서 이런 건물을 기부받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촌캉스 장소나 주민들 대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회의실에서 기관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 센터 내를 둘러보며 안내를 또 받았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마을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날 방문한 곳은 이즈미사노 시청 내 납세과였다. 이즈미사노는 2021년 일본의 총무대신으로부터 고향납세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된 곳이다.

이날 우리의 방문을 이즈미사노의 부시장님이 직접 맞이해주셔서 감사했다. 또 각자의 자리 위에 놓인 생수는 이즈미사노에서 생산한 비축수로써 재난 시 활용이 가능하며 10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의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 지진이나 화재 등 방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느껴진 대목이었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008년부터 그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즈미사노에서는 2017년부터 3년간 일본 내 성과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누계 납세 금액은 무려 천억 엔이 넘는다고 하였다. 우리 말고도 작년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만 60여 개 단체에서 비교 견학을 온다고 하는 것을 보니 가히 대표 도시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납세금은 이즈미사노의 주된 세외수입 중 하나이며 전체 세입의 15퍼센트를 차지하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담당자가 말해준 전국 1위 비법은 초기 시장 공략, 다양한 답례품 구비, 지속적인 홍보였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를 떠올리면 이즈미사노로 직결되는 이미지를 초기부터 잘 구축하여 그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또한, 이즈미사노에서 직접 생산되는 물품 외에도 타지역의 생산품을 가공하여 답례품으로 구비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형 답례품 종류도 많이 있었다.

특히 불교 수행 체험, 조상 무덤 청소 서비스 등이 인상깊었는데 이를 우리 창녕에 도입해 본다면 부곡온천 이용권, 산토끼노래동산이나 주요 관광지의 입장권을 묶은 테마형 관광상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특성상 벌초 대행 같은 사업을 민간업체에 많이 위탁하고 있는데 할인권을 지급하게 된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

창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일반적이지만 인기가 많은 품목 외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한우 불고기 세트, 과일주 등 특산품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조금 더 이색적인 답례품을 구비한 시군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김해시 명인명도 주방칼, 남해군 해녀가 삶아주는 자숙돌문어 등이 눈에 띄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희소성이 있어 경쟁력이 높아 보였고, 실제로도 답례품 인기 순위에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답례품을 구비하는 것 외에도 현재 한국에서 고향 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이음’ 사이트로만 홍보와 모금이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었다.

민간 플랫폼에서는 아마존 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터넷 쇼핑몰같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기에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는 것보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녕에서도 가능하다면 민간 플랫폼과 공식 협업을 통해 홍보 창구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연수의 마지막 날은 고베 문화 탐방을 끝으로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일본 내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색 마을 이진칸이 특히 기억에 남았는데 한국에 있는 남해 독일마을, 아산 지중해마을 등이 떠올랐다.

창녕에서도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것 외에 관광지를 구축한다면 이런 테마의 마을을 꾸며보는 건 어떨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일본의 곳곳에서는 공식방문지에서 공부한 것 외에도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없는 점, 뛰어난 시민의식, 관광객을 향한 친절함을 느낄 수 있어 기억에 남았다.

이번 국외연수에서 경험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박상재 의원

○ 의정연수 공식 기관방문

제9대 창녕군의회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두 번째로 떠나는 국외연수는 일본이었다. 1일차 일본에 도착하여 첫 방문한 기관단체는 치바시에 위치한 하모니 플라자(치바시 사회복지협의회)였다.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사회복지의 증진,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 커뮤니티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각종의 사업을 실시하는 복합 시설이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모두가 지탱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곳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으며, 특히 자원 봉사자의 활동이 왕성하여 선진형 경영운영이 돋보였다.

특히, 가장 인상이 깊었던 두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보건소와 같은 의료부분, 노인 및 장애인복지회관과 같은 복지시설 부분, 여러 사회복지활동 민간단체들을 하모니 플라자에 하나로 통합하여 한 데 모여 있어 효율적인 면모가 돋보였다.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팡이에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팡이를 들고 가는 방향마다 안내방송이 나와 길을 안내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2일 차, 도쿄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오쿠라 다케노스케가 기증한 여러 유물 중에 창녕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대를 안고 방문하였다. 신기하게도 창녕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뿐만아니라, 새날개 모양 관꾸미개, 금 팔찌, 굽은 고리 귀고리 등 창녕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여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창녕에서 유출된 유물들은 일본 문화재로 등록되어 한국으로 반환되지 못하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이러한 유물들이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창녕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과 함께 도쿄에서도 이에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공식 방문지인 요코하마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요코하마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나라협회는 1959년 4월 일본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해, 전국으로부터 전해진 축하금을 기금으로 196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원한 곳이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협력으로 점차 정비되었다고 한다.

요즘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 부분에 대하여 일본은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쏟아냈다. 저출산 문제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인상 깊은 답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며, 앞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몇 가지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본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제공, 보육시설 확대 및 개선, 육아휴직 및 양육휴직의 남성참여 촉진,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일차,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에 방문하여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는 교토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센터는 교토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소개 하며 교토시 역사에 대해 특별한 매력을 전달하였다.

특히,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병풍에 새겨진 그림은 교토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었다. 이 병풍은 역사적인 흐름과 교토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또한, 가이드가 동행하여 그 당시의 전통적인 의상이나 공예품, 신분별 가옥 형태 등 유적지의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을 설명해 주어 역사적인 순간들을 되짚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교토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교토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그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아울러, 교토시민들은 도시 존폐에 위기의식을 느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건립계획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각형 테두리로 보전

지역을 지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빈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빈집을 국가에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위와 같은 주민협의체와 세금부과 제도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다.

4일차, 이즈미사노시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를 방문하였다. 이즈미사노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2017년부터 3년간 전국 1등을 하였다고 한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천억엔 기부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본 최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즈미사노시는 부채가 꽤나 많다고 한다. 이유는 간사이공항을 이즈미사노시 쪽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즈미사노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고기류가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한다. 이즈미사노시는 1차산업(농업, 어업, 축산 등)을 하지 않음에도 어떻게 답례품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즈미사노시 관계자는 없다면 만들자라는 대책을 세워 다른 지역의 축산, 농수산물 등을 공수해서 직접 가공품으로 만들어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대신 가공하는 설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금을 교부해주기 때문에 가공업자에게도 부담이 덜 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 창녕도 답례품을 우리군 특산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시군구의 인기 있는 특산물도 우리식대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창녕 실정에 맞는 체험형 답례품을 제시해보자면,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벌초 대행을 해주는 것과 재가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부모를 케어하는 사업을 한다면 호응이 좋지 않을까 싶다.

○ 이번 창녕군의회 국외 연수를 마치며

도쿄는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와 활기찬 도시 생활이 돋보였던 곳이다. 도쿄에는 다양한 고층 건물(도쿄 시청, 도쿄 의회청사 등)과 교통 인프라가 있으며, 거리들은 아주 깨끗하였으며, 도로도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 도쿄의 대표적인 도로인 케트로폴리탄 고속도로는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지하도로 등 3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도쿄 시청 앞 노숙자가 터전을 잡고 방치되어 있던 모습은 못내 아쉬웠다.

교토와 오사카는 모두 일본의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 두 도시를 함께 견학하는 것은 이번 연수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함축적으로 세 도시를 요약한다면, 정치중심 도쿄, 경제중심 오사카, 문화중심 교토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본 벤치마킹을 통해 창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 이가은 의원

■ ‘2024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을 주제로 2024년도 공무국외연수 일정이 정해졌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으로 4박 5일간 다녀오는 일정이었다. 연수 첫 날, 비오는 새벽을 뚫고 김해공항으로 출발하였다. 2시간 10분간 비행 후 일본 나리타 국제 공항에 도착해 간단한 점심을 먹고 첫 공식 방문지인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로 이동했다.

○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와 동경 방문

치바시 주오구 치바지조에 위치한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1972년 2월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치바시의 사회복지협의회로서 지역주민, 시민복지위원회, 어린이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반상회 등의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학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익숙한 지역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는 지역주민 및 다양한 조직(단체, 기관, 복지시설 등)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종합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치바시 하모니플라자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복지를 추진하는 전문 조직으로서, 이곳 외에도 일본 전국의 도도부현, 지정 시정촌에는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가 설립되어 있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 커뮤니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왕성하여 선진형 경영이 돋보이는 것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보인 부분이다.

다음은 동경으로 이동하여 동경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신도청 전망대로 향했다. 그런데 화려한 마천루 전망대와는 달리 교량 아래에는 노숙자 촌이 줄지어 있었는데, 일본의 수도이자 아시아 최대도시의 양면성이 드러나 한편으로는 씁쓸해 보이는 광경이었다.

○ 도쿄국립박물관 방문

오쿠라 타케노스케가 기증한 창녕출두품을 관람하기 위해 도쿄국립박물관에 방문하였다. 국립문화재기구 소속인 도쿄국립박물관은 일본과 동양의 고고유물, 미술품 등의 문화재를 수집, 보관 및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다. 1872년에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시절 불법적으로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대부분인 것 같았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물들이 많아서 속상하기도 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나라 협회

어린이나라는 쇼와 34년(1959년) 일본 황태자의 성혼을 계기로 설치되었는데, 전국에서 온 성혼축하금을 어린이를 위해 쓰고 싶다는 황태자의 희망이 계기가 되어 건립되었다.

쇼와 35년(1960년) 옛 미군 탄약고 터 국유지 위에 건립된 어린이의 나라 본원은 카나카와현 요코하마시와 도쿄도 마치다시에 걸쳐있는 풍부한 자연환경이 인상적인 곳으로, 약 96만 평방미터(29만 평)의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시설로 건설되어 쇼와 70년(196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아동후생시설이 되었다고 한다.

본 의원은 ‘놀이 속에는 미래가 있다’ 라고 표기된 팜플렛 제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소꿉을 짜고, 토끼 먹이도 주는 등 다양한 체험·놀이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이보다는 학업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기관 방문을 마치고 이곳을 빠져나오는 길에 소풍 나온 어린이들을 보았다. 특히 광장 길 위에서 마음 편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평온함 그 자체였다. 따뜻해진 마음을 간직한 채 버스의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에는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다. 봄의 전령사 매화가 여기저기 연분홍빛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거리의 예술가들(어린이의 나라에서)

○ 교토시 경관 마을만들기 센터

교토로 이동하여 공익재단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에 방문하였다. 공익재단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는 주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다리 역할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초 설립된 이래로 지역 마을 만들기 촉진과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 이용의 촉진을 2개의 기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가나 학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와의 제휴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교토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등 교토만의 도시 특성을 늘려 가고 있었다.

교토는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사찰 및 교마치아 거리 등의 역사적인 건물, 그리고 세련된 근대 건축물도 돋보이는 자연과 역사의 도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역의 높은 경제력과 활력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교토시 경관 마을만들기 센터의 주체적인 활동은 옛 교토의 생활과 문화를 포함한 미의식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교토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서, 이곳의 존재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역 활력의 저하, 주민 커뮤니티의 약체화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빈집이 증가해 도시경관에 있어 교토의 매력 저하를 초래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나 교토가 교토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에 과감히 대응해, 지금까지 교토가 쌓아온 도시의 매력에 걸맞는 가치를 부가하고 한층 더 연마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처의 열쇠는 교토의 협치 정신이다. 주민, 기업, 행정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마을을 조성하는 교토시민들의 협치 정신은 우리 군도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 이즈미사노시 고향납세과 방문

우리 연수단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오사카 이즈미사노시 고향납세과를 방문하였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즈미사노는 굉장히 생소한 도시인데, 일본인들에게는 이즈미사노가 타올의 도시 또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라고 인식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고향납세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이즈미사노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이며, 2008년 고향납세제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액은 천억 엔을 초과했다고 한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일본 전체 지자체 중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향납세제도가 발달한 곳이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달리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주체가 개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한 점이다. 기부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부터 16.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이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처럼 여러 부문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부할 수 있는 폭을 좁히고 기부금 유치의 한계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개선해 기부지역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 도입 이래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우리와 달리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은 2천엔 이상으로 한도액은 없으며, 40만 개 이상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민간 플랫폼의 뒷받침 때문이라고 한다. 기부금과 별개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민간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부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고향납세금은 기금의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즈미사노시의 고향납세 기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정비, 시민 공생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 추진, 육아·어린이 지원, 예술 및 문화진흥, 후루사토(역사와 문화의 보존) 프로젝트, 우리 마을 프로젝트(자치회 결성 및 지원) 등으로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기부절차, 불명확한 기부금의 사용처, 지역 간 답례품의 편차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만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지방 재정보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오사카성

오사카성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성으로 1583년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축성했다고 한다. 완성 당시는 금박 장식으로 뒤덮인 호화스러운 모습이었으나 이후 소실과 재건의 역사를 거쳤으며 지금의 건물은 1931년에 콘크리트로 복원된 것인데, 병풍에 그려진 그림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는 오후 시간이었음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왼쪽 방향으로 내려오게 구조를 짠 오사카성 내부의 계단은 돌이 지나가기에도 좁아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벅차 보였다. 그러나 질서정연한 일본의 예절과 효율적으로 구성된 관람 동선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안정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일본의 질서정연한 정신은 크게 본받을만하다고 느껴졌다.

○ 고베 차이나타운

연수 마지막 날인 5일 차를 맞았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연수단은 동경과 치바, 요코하마, 오사카, 교토를 오가며 며칠 동안의 강행군으로 지쳤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고베문화 탐방의 길로 나섰다. 고베는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도시로, 고베 차이나타운이 인상적이었던 곳이었다.

밀집된 상점가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중국의 향취가 진하게 느껴졌다. 간식거리와 기념품을 사고파는 관광객·상인들로 활기가 넘쳐 보였다. 우리 연수단도 사람들 틈에 끼여 잠깐 길거리 맛집 투어를 하였다. 만두, 짬뽕, 튀김 등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차이나타운. 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끌리는지 알 것 같았다.

○ 의정연수를 마치며

4박 5일간의 의정 연수를 마치고 이번 연수의 주제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지역소멸의 극복’이라고 생각한다. 하모니 플라자와 어린이 나라, 경관 마을만들기 센터, 고향납세과 기관 방문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성공적인 운영 방법을 잘 활용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 지방재정보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 김정선 의원

○ 1일차 치바시 하모니 플라자 방문

동경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치바시 사회복지시설인 하모니 플라자로 이동하였다. 건물에 들어서자 거울처럼 광이 나는 실내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최신 건물은 아닌데 궁금하여 물어보니 1995년에 지어진 25년째 되는 건물이었다. 그동안 큰 리모델링도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관리하기에 눈에 띄는 청결함으로 방문자의 마음부터 사로잡을까.

하모니 플라자는 일본 내 98만 명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시설로서 규모는 축구장 2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여러 시설이 어우러져 조화(=harmony)를 이룬 복합시설이며 사회복지센터라고 소개했다. 장애자와 고령자, 어린이의 건강검진 등으로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

특히 장애인 상담 센터에서는 비상근 의사들이 매달 상담을 통해 의학적, 심리학적인 판정으로 공적인 증명이 되는 장애인 수첩을 발행하며 보장구를 지급한다고 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휠체어를 전시하여 놓았으며 종류만도 20여 가지가 있었다. 장애인 관련 업무에도 6개 부서가 연계하고 있으며, 치바시에서 일부 파견된 공무원과 중앙정부에서 보조로 나와 일부 역할을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근무 인원은 150~200여 명 정도라고 한다.

예로서 노인과 관련된 단체를 소개하자면 ‘노인연합회’는 시에서 사무실을 대여하여 운영하면서 가까운 지역의 반상회도 개최하며 친구 만들기도 유도하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발적 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한다. ‘노인클럽연합회’는 노인클럽 간의 가교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협의회’는 양로원, 요양원 등의 시설 안에서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며 이러한 사업을 위한 연수 등을 진행한다고 한다. 중복 가입도 있겠으나 목적에 맞게 세분하고 조직하였다는 느낌이다.

시설을 둘러보는 계단과 바닥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세한 배려가 스며 있었다. 계단은 보통 22cm 높이이나 고령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등학생 계단과 같은 15cm로 되어 있었다. 점자블록으로 시각장애인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계 전광판이 위험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 지팡이의 방향에 따라 장소를 알려 주는 센스가 홀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창녕군의 장애인 시설에도 접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설명을 들으며 거미줄처럼 잘 짜인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기적이라 함은 문제점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부서를 연결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이름 그대로 harmony를 이루며 사회, 또는 구성원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리라.

하모니 플라자를 나와 신도청 전망대에 올라 이른 도시 야경을 구경하였다. 계획도시로서의 도로는 사방이 바둑판처럼 뻗어있고 세련된 느낌으로 아름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도시의 구성원이 된다면 오래지 않아 일탈을 꿈꾸거나 우울병이 들것만 같았다. 이 생각은 일본 연수 기간 내내 거리를 걸거나 차량 이동 시 도시 풍경(특히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따라 따라다닌 생각이었다. 모든 건물은 직각의 구조로 완강하게 거부의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었다. 어쩌다 보이는 곡선의 건물이 눈물겹게 반가울 정도였다. 도심은 사각의 건물뿐이어서 도시로만 기능하듯 동산이나 공원 등의 녹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혼한 가로수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 2일차 도쿄국립박물관(오쿠라 다케노스케가 기증한 창녕 비화가야 출토품 관람) 방문

눈을 뜨면서부터 설레었다. 전직이 해설사로서 도쿄 국립박물관의 한국관 관람은 우리 해설사들의 희망 사항이지만 단체로 시간을 내고 개인경비를 부담하기에는 여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관 입구의 야외 전시물들도 한국에서 가져온 유물들이었다. 한글로 강원도에서 가져왔다는 이름표가 그나마 다행으로 느껴졌다.

일제 강점기 오쿠라가 대구에 전기회사를 운영하며 큰돈을 벌었고, 고물품 수집에 열을 올렸는데 특히 창녕의 고분에서 나오는 부장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한다. 일본이 조선고적 조사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식 발굴을 끝낸 후, 무덤에 손을 대면 삼대가 재수가 없다는

관념을 깨고 우리나라 고분은 전국적인 도굴이 대대적으로 성행하여 몸살을 앓아야 했다. 여기에 오쿠라가 후한 값을 쳐준다는 정보에 창녕의 부장품들은 고스란히 오쿠라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 패망과 동시에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천여 점이 넘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은 문화재 매매가 자유롭지만 중요문화재로(우리나라 ‘국보’) 지정되면 외국으로는 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오쿠라가 반환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지만 사후 그의 아들은 동경박물관에 기증해 버렸고, 일본은 중요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품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져 버렸다. 오늘 그 비화가야의 유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가야의 전체 유물 중에서도 절정의 미를 보여주는 금동투조관모와 금동관모, 화려한 귀걸이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에 창녕 비화가야의 유물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8점이었으며 설명은 한글로도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설명에서도 모순되고 왜곡(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안타까웠으며 왜 창녕군은 외교적으로도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금관 (전)한국 경상남도 출토’의 ‘(전)’은 ‘전할 傳’을 의미한다. 영어, 중국어, 일어 모두 ‘경상남도 창녕 출토’로 바꾸어야 한다. ‘고대 한국에서 금관은 왕의 상징, 왕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빛과 소리’라고 설명하면서도 금관을 ‘수장’이 사용한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왕’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창녕은 사쓰마센다이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맺어 교류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라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럴 때 비로소 창녕을 ‘비화가야 왕국’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가 아닌 엄연히

540년간 존재했던 가야연명체로서 사국시대의 역사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속에서 눈도 마음도 바쁘게 종종거리며 관람을 마치고 돌아서야 했다.

○ 2일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 방문

점심식사를 하고 이동한 곳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였다. 이곳은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모인 축하금을 기금으로 해서 196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원했다고 한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설립한 아동후생시설이라는 설명이다.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와 같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방정환이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한 것은 1922년이었고 이듬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효시이다.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 기념일이 다시 거행되면서 5월 5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문득 방정환이 친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 보니 일본은 1948년에 지정한 것으로 나왔다. 내 안의 편견이거나 깊은 피해의식의 발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다무라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자연환경을 살려서 놀이와 다양한 자연 체험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는 야외학습장으로 나왔다. 아이들이 시멘트 바닥을 도화지 삼아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그리는 아이도 있었다. 가까이 가니 색깔별로 분필이 모아 둔 곳에서 분필을 가져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는데 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 자연이 그림이 크고, 꽃과 얼굴 그리고 동물들이 마음껏 그려져 있었다. 정서적으로 신나고 자유로울 것 같아 좋았다.

세계적으로 선진국가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일본도 예외가 아

니었다.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출산과 관련 의료보험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들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수당도 현재 연령보다 높이고 금액도 높이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부분을 공감하나 그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점에 있어선 국민 여론이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일본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출산축하금이 있으나 효과는 없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이나 출자를 늘인다고 출산율이 높아질지는 일본 정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설명에서 깊이 공감되었다. 일본은 출산율 문제보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한다. 그 이유로 주택문제가 많다니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빈부격차나 사회문제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까지 변하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도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0.7%보다 앞선 1.32%라고 한다.

오사카로 이동하는 기차에서 후지산을 보려고 했으나 날씨 탓인지 잠깐 사이 지나쳤는지 가이드도 우리도 놓쳐 버려 아쉬움이 있었다. 일본을 상징하는 산이고 또 후지산 화산폭발이 잇힐만하면 인터넷 뉴스로 접하게 되니 차창으로라도 보고 싶었다. 연수를 출발하는 시점에도 일본의 어느 지역 화산폭발 뉴스를 보고 온 터였다.

○ 3일차 ‘공익재단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 방문

공익재단법인인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의 설립은 교토시의 오래된 건물이나 유적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1년에 700~800여 개가 사라지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호텔이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주변 환경도 함께 조성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자 설립하였고 주민과 기업, 행정이 파트너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교토다운 경관의 보전과 교토시의 도시 특성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센터 내부에는 바닥과 벽면을 활용하여 교토의 풍토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꾸며 놓았다. 바닥에 그려진 지도는 2000년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교토시의 동고서저, 북고남저의 지형이 그려져 있었으며, 설명을 들으며 수도의 이동역사와 함께 풍토와 기후 관련 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벽면에는 ‘낙중낙외도’ 라는 병풍 12장(1년 12개월)이 6개의 패널로 연결되어 계절의 순환을 디오라마처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펼쳐 놓았다. 해설사의 설명으로 그 시대의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감명 깊게 들려주었다. 좋은 아이디어와 구성에 감탄했다. 근무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자긍심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이 센터는 1997년에 설립하였으며 교토시가 전액 출자하여 교토시 전통가옥 수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부터 시작했으며 마을 만들기 펀드도 설립했다고 한다. 마을을 보전지역과 재생지역, 그리고 21C 창조지역으로 나누고 있었으며 창조지역에는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한다. 구획 단위로 집을 짓고 그 구획 안에서 자치조직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사업자, 행정은 가교역할을 하며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한다고 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먼저 지구계획을 세워 마을에서 독자적인 규칙을

정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경관보전협의회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교환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시민들은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을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으며, 등록된 전문가는 90여 명에 이르며 목수, 건축가부터 택지전문 거래사, 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하다고 한다. 연간 5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놀랍다.

○ 4일차 ‘이즈미사노시 고향사랑 기부제 납세과 방문

이즈미사노시는 인구 10만의 도시로 재정이 어렵고 빚이 많다고 한다. 일본은 ‘고향납세’ 제도는 총무대신의 지정에 의해서 되며 이즈미사노시에 대한 고향납세는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답례품의 답례 비율을 30% 이하로 하는 것 등을 보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를 참고해서 벤치마킹한 제도인 듯하다.

차이점을 보자는 우리는 거주지 이외의 지역만 가능하나 일본은 거주지에도 가능하고 그 대신 거주지 기부일 땐 답례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 기부자의 후원금이 어느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도 가능하다고 하며, 기부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선 경쟁이 치열하며 지자체에서 지자체로 세금이 이동한다고 한다. 적립된 기부금은 활용용도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창녕군처럼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모으기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 창녕군은 산적한

문제를 두고 기금활용을 적금이자 채기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부를 받는 방법도 민간이 기부금을 받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이 하는 창구는 장사 용도로 하고 있으며 쇼핑몰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4개의 포털사이트가 있어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납세금이 전체의 94% 정도 된다고 하며 지자체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서 2022년도에는 9,654억 엔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최근 4년간 37.1%로 급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잠재적 시장을 13조 엔으로 보고 있다니 놀랍다. 2022년 이즈미사노시의 전체예산 세입(768억 엔)의 1/7에 해당하는 100억 엔 정도가 고향납세라고 하니 이 또한 놀랍다. 이는 고객 납세자들이 절세대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 지원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 특징적인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고향납세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사용처나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인기 답례품은 쇠고기인데 이즈미사노시는 소를 키우지 않는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가공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기부하는 사람은 답례품 받는 것에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례품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단다. 답례품 외의 다른 답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험형·체재형 답례, 수행 체험, 조상의 무덤 돌봄 서비스 등도 있다고 소개한다.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이 답례품을 만드는 사업자에 한해 100% 보조

금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선택하면 사업자에게 물품값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공장건설이나 설비 투자 등을 펀드로 해서 기금을 모집하여 사업자에게 또다시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한다. 새로운 답례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고 하니 역으로 보면 특산품이 풍요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최고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이다. 이즈미사노시의 정책의 성공이자 ‘고향납세’에 총력과 사활을 건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다.

이즈미사노시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 이유를 묻는 질문에 초창기 부터 홍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일본 내 선두 주자로 알려진 이유라고 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었기에 ‘고향납세 = 이즈미사노시’란 인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납세가 다시 복지를 위해 쓰임을 이해시키고 설득한 노력도 이유라고 했다.

4일 차 오후엔 오사카성과 신사이바시와 도톤보리도 둘러봤으며 5일 차에는 고베의 이색마을과 차이나타운 등을 둘러보았다. 오사카성의 견고한 외벽과 내벽 그 사이의 물길이라는 장치를 보며 인간이 지닌 권력욕의 정점을 보는 듯했다. 영원히 누리려는 욕망의 크기만큼 불안과 의심이 오사카성의 본질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가장 소중한 자식과 여인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니 놀랍지도 경탄하고 싶지도 않다. 각진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 나를 피곤하게 했다. 일본 국민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일본의

자판기 문화가 개인주의로 인해 발전했다고 하나 그 개인주의가 온통 직선의 건물과 도시디자인 때문이라 여겨졌다. 것처럼 친절하고 겸손한 일본인들이 개인주의라니 인간이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5일간 내가 느낀 건 한없이 위축되고 단절되는 존재감, 문명에 간혀 무력해지는 기분이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 숫자만큼 바코드를 읽거나, 대금을 계산할 때 엔화와 카드로 나누어 계산하지도 못하는 것이 산수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융통성도 허용되는 않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아직도 100 볼트의 전기를 쓰며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항의하지도 못하고 모두들 숨죽이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사회생활에서 한없이 다정한 친절을 보이면서도 인간관계는 개인주의로 빠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편안해서 자판기로 해결한다니 씁쓸하다.

그럼에도 일본사회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시민단체나 행정조직,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촘촘히 짜여 협력하고 공생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은 한없이 부러웠다. 일본에 머무는 짧은 동안 ‘일본이 있다.’ 라는 책 제목과 ‘일본은 없다.’ 라는 책 제목이 수시로 머릿속을 맴돌았다.

- 우리 연수단은 사회복지·인구증가·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외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우리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먼저,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와 방문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취약계층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 방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대응책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군의 복지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에는 여러 단체가 속해있지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관점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치바 시 하모니 플라자의 내부 시설은 모두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설계되어 포용성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의 소외계층 복지정책과 사회통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우리군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의 나라 협회 방문은 우리군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복지를 위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한 기관으로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건강한 어린이 육성 정책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다.

- 어린이의 나라 협회는 최초 개장이 1965년으로,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개장한 지 오래되었지만 엄격한 시설 관리로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넓은 부지를 자연 친화적인 콘텐츠로 활용한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만족해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저출산 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아파트 임대료 지원, 결혼·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 등을 실시하였으나 인구 증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우리 연수단은 인구 증가정책 수립에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인구 증가는 몇 가지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구는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현재 우리군이 직면한 마을 소멸 및 빈집 문제에 대한 시책 창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구(舊) 건축물을 철거하나 현대식 건물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토가 가진 이미지와의 조화를 위해 경관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향후 빈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군이 소멸하는 도시가 아닌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차별화된 주택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경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의 정책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도입

- 일본은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 처음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름으로 2023년 처음 시행하였는데, 도입 초기로서 아직까지는 정착이 확고하게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르게 생각하면 현재는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이즈미사노 시는 일본 내에서 고향납세 제도가 가장 발달한 지자체로, 기부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잘 정립되어 있던 곳이었다. 우리 연수단이 수집한 자료는 향후 우리군이 경쟁력있는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일반사항

- 국 명: 일본(日本, Japan)
- 수 도: 도쿄(東京, Tokyo)
- 인 구: 1억 2512만명
- 면 적: 37만 8000km² (한반도의 약 1.7배)
- 종 교: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
- 행정구역: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 [총 47개]

2) 정치현황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나루히토 천황
-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
- 의회구성: 양원제(참의원 / 중의원)
- 주요정당
 -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
 - 야 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3) 경제현황

- GDP : 4조 2311억\$ (2022, World Bank)
- 1인당 GDP : 3만 3815\$ (2022, World Bank)
- 경제성장률 : 1.0% (2022, World Bank)
- 화폐단위 : 엔(円・yen)
- 총교역량 : 1조 6,541억\$(2022, 일본무역진흥기구)
- 수출액 : 7,515억\$
- 수입액 : 9,026억\$
- 물가상승률 : 2.5% (2022 World Bank)
- 실업률 : 2.6% (2022 World Bank)
- 외환보유고 : 1조 2,276억\$(2022.12월, 일본재무성)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1965. 수교
- 투자현황: 대한투자액 13억\$, 대일투자액 4.8억\$(2023. 1 ~ 2023. 9)
- 교역: 일본은 우리의 제4위 교역국 / 우리는 일본의 제5위 교역국(2023년)
- 수출액: 290억 2,000만\$
- 수입액: 476억 6,000만\$
- 교민현황: 약41만 1천여 명(재일한국인 약2만 5천여 명) (2022년)
- 인적교류(2022년 기준)
 - 방한일본인 234.6만 명 / 방일한국인 695.9만 명
 - 일본체류 한국인 약 41만 2천명
 - 한국체류 일본인 약 4만 7천명

※ 자료출처: 외교부(www.mofa.go.kr)

일본관광청(<https://www.japan.travel/ko/kr/>)